

군산시 인구정책 본격 추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논의

군산시는 2021년도 군산시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인구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시장 등 위원 14명과 인구정책 분야별 중점 추진 사업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정부 로드맵 소개, 군산시 인구 기본현황 및 5개 분야 59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

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인구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민과의 인구정책 소통 및 피드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만족도 실시와 <부모소리함> 열선, 원탁토론회 등을 개최해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실무부서 T/F를 통해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협업을 통해 군산시민의 특색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군산시·기관·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간 상호협조와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논의를 도모하며 인구절벽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산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형 상생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선정 등 군산시에 주어질 기회를 잘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

군산시, 상반기 아동쉼터 개설 등 인프라 준비 박차

군산시가 학대피해 아동 쉼터 개설 등 인프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상반기에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개인이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쉼터 개설로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분리조치 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현재 아동양육시설(4개소) 및 공동생활가정(9개소)을 활용해 쉼터 설치 전까지 일시 보호시설의 역할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체계가 공공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대상지 현장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진)가 제234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를 현장방문하여 공유재산 취득 전반을 검토하며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마동 및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지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며 사전 제출된 계획안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사업임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해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서부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다목적 체육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를 현장방문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서,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가 11일 배달의 명수 출시 1주년 기념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3백만원을 전달했다

"영세 소상공인들 매출신장에 밀알 되길"

군산사회복지장학회 '배달의 명수' 출시 1주년 3백만원 지원

군산시는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가 11일 배달의 명수 출시 1주년 기념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3백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는 지난 1994년 군산시내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역인재 양성과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설립됐으며, 설립 이후 120억원 이상의 장학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봉 이사장은 "영세 소상공인들

이 코로나19 등으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그간 큰 힘이 되어준 배달의 명수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덜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배달의명수는 지난해 3월 13일 출시이후 90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전달된 3백만원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의명수를 찾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달의명수 매출 100억 돌파 기념 할인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 동화책 관내 기관에 기증

문·미 프로젝트로 제작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LINC+사업단에서 주관한 문·미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동화책을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증했다.

문·미 프로젝트는 지역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일환으로 동화에 관심 있는 문예창작학과 및 미술과 학생 14명이 협업을 통해 동화책을 만들고, 중앙동 모던갤러리 전시에 참여한 프로그램이다.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와 미술과 이용석 교수를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 학생들의 멘토를 맡아 진행된 가운데 프로젝트 결과물로 '사람들이 동물로 보여요!' 등 총 11종의 동화책이 만들어졌다.

학생들과 멘토단은 만들어진 동화책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아 지난 9일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접 동화책을 기증했다.



동화책을 전달받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선화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 놓고 놀기 힘든 시기에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뜻깊은 동화책을 기증받아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농협, 농촌경제 활성화 시의원에 감사패 전달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8일 익산시의회 조남석, 신동해, 이순주의원에게 우리농협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농업인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남석 의원은 "익산농협은 물론 익산지역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시와 지역 유관기관 등은 농가소득증진을 위해 우리쌀 판매에 온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욱 조합장은 "RFC 현대화 사업 등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익산농협은 생산·가공·유통 전문농협으로 성장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공급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읍면동 신년대회 비대면 방식 성황리 개최

군산시는 지난 5일 시작해 11일까지 비대면 언택트 방식인 ZOOM을 활용한 신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지난달 22일 4개 동(조촌동, 경암동, 개정동, 구암동)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의 신년대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발 빠르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나머지 23개 읍면동에 대한 신년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수송동 A시인은 "시장과의 직접 만나 공감대화를 갖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꺼려졌는데 스마트 폰을 활용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시장과의 공감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며 비대면 신년대회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신년대회는 각자의 일터나 가정에서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해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을 포함 1회당 100여명이 참여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